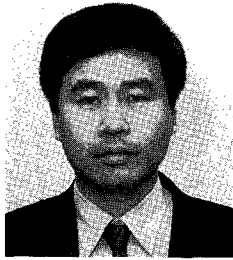


## 종계의 생산성 저하 원인과 대책



김 충 수  
(주)삼희농원 영업담당이사

“생산성이 나쁜 가장 큰 원인은 종계의 육성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그외 계사의 시설에 따른 사육환경, 관리인의 자질, 종계의 질병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근에 업계에서 종계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시산일령이 평균보다 1~2개월 늦는 데다가 피크산란율도 7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례가 허다하고 산란지속성마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국내 C.C 물량의 절대수가 모자라고 제때에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고 보니 외국에서 종란수입까지도 하게 되고 이에대한 업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실제로 국내굴지의 어느 계열업체에서는 C.C 물량이 생산계획량보다 절반정도에도 못 미치다보니 부족한 물량확보를 위해 종란을 수입해서라도 충당하려 함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상황에 따라 편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인이 다년간 원종농장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종계의 생산성이 나쁜 원인으로 작용하는 몇가지 원인과 대책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생산성이 나쁜 가장 큰 원인은 종계의 육성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종계장들이 육성농장을 갖추지 않고 있고, 임시 방편으로 C.C 농장 등 열악한 시설에 육성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 진것도 문제거니와 지난해에는 병아리 시세가 고가를 유지하다 보니 연장 생산이나 강제환우에 의하여 성계사를 비우지 못하고 제 시기에 육성계를 옮기지 못해 육성사에서 오래도록 사육하게 되다보니 자연히 밀사 등으로 육성을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실제로 본사의 직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평당 수용밀도가 지나치게



많아 수당 사료급이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며 개체간 우열의 차이가 심하고 압사 등으로 폐사가 많아 애초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택의 K농장에서는 좋은 시설의 육성사를 이용하여 일부 위탁종란 업체의 육성을 대행해 준 결과 산란성적이 월등히 좋아져 여러 종계장들이 육성을 부탁하는 예가 많아졌다고 한다.

좋은 시설의 육성사를 갖추고 정확한 육성을 하는 농장에서는 현재도 생산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종계의 정확한 육성만이 성계시 산란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계사의 시설에 따른 사육환경에서 나타난다. 1년중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OUT 시즌에 시산하는 닭들이 시산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이상까지 늦고 성적도 좋지않은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유창계

사의 경우 긴 여름동안의 태양광선에 노출되었던 닭들이 점등자극을 받으려면 최소한 100lux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사의 현실은 어떠한가? 드문드문 매달린 뽕얇게 먼지 앉은 전구 아래서 또는 부족한 전력때문에 닭들이 정상적인 점등자극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보니 정상적인 성성숙을 기대할 수 없어 생산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시산이 늦은 만큼의 종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무창시설에서는 불과 40lux 이하의 낮은 점등자극에도 정확한 시산을 시킬 수 있다.

실제로 본인이 근무하는 농장이나 천안의 P계열업체농장, 용인의 D농장 등에서는 이러한 완전 무창시설을 이용해 제시기에 정확히 산란함은 물론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충남 홍성의 S종계업자는 무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온덮개를 이용하여 간이시설로 햇빛을 차단하여 육성한 결과 제시기에 시산을 유도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따라서 계사의 시설에 따라 생산성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 만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세째는, 관리인의 자질문제이다. 종계의 성적은 병아리 입식으로부터 육성과정과 성계에 이르기까지 관리자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닭에게 가장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였을때 이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자의 이동

이나 자질 부족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예를 우리주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관리자가 무지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계군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없다.

관리자의 노력에 의해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그 이득금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성적수당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성적을 올리기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본인이 근무하는 농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정한 생산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성적이 나오면 추가 이익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관리자에게 성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놀랄만 하다. 성적 수당을 타기위해서라도 관리자들이 경쟁적으로 밤잠을 덜자고 노력하며 계군이 끝날 때마다 수백만원씩의 성적수당을 타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종업원에게 박람회 등 외국연수 등의 기회도 부여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새로운 관리기술을 끊임없이 교육시켜 전문가가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투자는 종계의 생산성 향상과 비례하는 만큼 고급인력을 키워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계의 질병문제이다.

육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히 접종도 했으나 이상하게 산란율이나 수정율이 나쁜 계군이 있다면 질병쪽을 의심해야 한다. 본인이 전문지식은 부족하나 종계업자나 계열업체 등의 종계담당직원과 대화해보면 많은 종계농장들이 ND나 IB로 인하여 성적이 나쁜 경험이 있고, 최근에 많은 농장들이 Salmonella균에 의하여 생산성을 나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산란계에 많은 피해를 입힌 S. gallinarum(가금티푸스)가 최근 종계쪽에는 급속도로 전염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책임있는 단체에서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조사 및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의 피해를 감추기보다는 앞으로의 국내 양계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상기에 기술한 여러가지 생산성 저하원인을 분석하여 내 농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하나씩 개선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좋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종계인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양계

